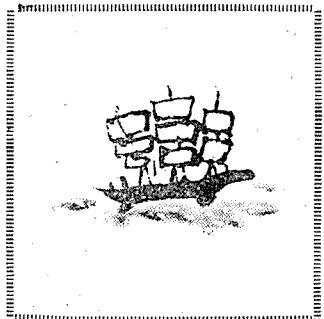


기획지부

일선 직원의 수기



京畿지부 事業課長

成 正 雄

식욕과 미각의 가을, 천고마비의 서늘한 계절이 되면 자연히 식욕이 좋아지고 맛이 나는 계절이며 추기 학도 기생충 겸병 사업 시기이기도 하다.

또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유행 형태를 보이고 있는 질병은 기생충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기생충은 우리의 귀중한 피와 영양분을 빼앗는 무서운 해충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각종 질병에 신음하게 되고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의 정신적 육체적 발육을 저해하고

성인들에게는 노동력 저하를 초래해 함으로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는 수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기생충 예방 사업은 국민보건상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이 사업은 대상인원이 온 국민이기 때문에 사업 성질상 일 개인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 다같이 기생충 예방사업에 참여함으로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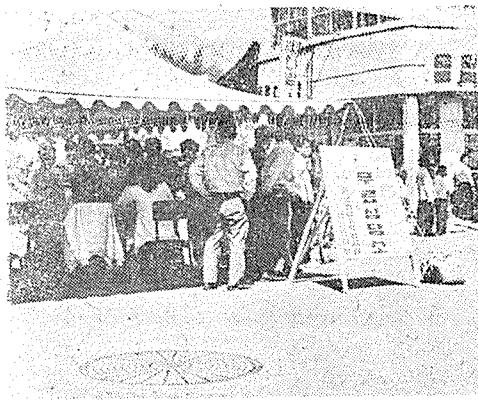
1. 결손한 자세와 열두냥짜리 인생

어찌면 우리에게는 상전이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다.

경기도 지부 사업과장으로 처음 일선 근무에 임하면서 경기도 관내 24개 시군의 유관 기관에 사업 드레 및 인사차 방문하였을 때 회비왕국선의 일들이다. 수고들 하십니다! 예? 어디서 오셨읍니까? 기생충박멸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왔습니다. 예! 대답만 하고 앉으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자기들 할일만 하는 것이다.

이 순간의 기분은 무참하기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기에 유관 기관에서 열두냥짜리 인생 대우를 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할수록 울화통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더욱 침착하고 결손한 자세로 “선생님 저 기생충 박멸협회 경기도지부 사업과장입니다” 하고 직함을 한장 내놓았다. 그때서야 언짢은 어조로 예!



경기지부 對民 가두겸변 광경

저기 앉으세요”한다. 속 상한 마음을 억제하면서 담배를 권한다. 역시 치밀어 오르는 울화통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안심초에 불을 부친 다음 제가 이번에 경기지부에 근무하게 되어 저의를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인사 차들렸습니다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열 말씀을! 하고는 “당신들 사업을 도와주면서 진땀을 뺏읍니다” 앞뒤도 없는 투명스러운 말을 뱉는다. 이 말을 듣는 나는 즉흥적으로 무슨 일인가 내 머리에 떠올랐다. 예, 죄송합니다 하고 득례를 하였다.

그런 다음 지나간 경로와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해명하여 주었다. 그때서야 얼굴에 밝은 빛을 띠우며 부드러운 말씨로 대우해 주었다.

위와 같이 내 자신이 느낀 점은 우리들의 자세는 언제나 겸손 또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면 대화의 광장이 열린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이러한에 앞서 또 하나 느낀 점은 유관 기관으로부터 신뢰받

을 수 있는 행동과 실천이 앞서야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오늘도 고달픈 몸에 걸친 피로를 극복하면서 비포장도로의 터널거리는 빼스에 몸을 실고 내일을 위하여 귀청한다.

2. 힘겨운 새마을 자조 협동에 의한 주민 자조방역사업

주민 자조 방역사업하면 단잠을 깨우게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전국 각 시도 지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보건 향상을 담당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주어진 사명감과 책임감에 쫓기며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오늘도 매진하고 있다.

학도 겸변사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색다른 자조 방역사업은 정말 힘겨운 사업이라는 것은 일선 실무자단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지부에서도 사무국장이하 전체 직원들은 자나깨나 자조 방역사업 때문에 먹는 것이 소화가 안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며 어떻게 하여야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항상 연구과제이다. 그렇다면 일선 실무자로서 힘겨웁다고 느낀 문제점 몇 가지를 기술하여 본다.

(1) 기생충 만성질환이 인체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병이 되어 국민들에 미치는 기생충의 위해와 예방사상이 고취되지 않아 관심도가 아주 적다.

(2) 주민 자조 방역사업은 전국민의 참여가 요청되며 제한된 지방비 보조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으로 수익자 부담 방역사업을 확대시켜 범국민

적 사업으로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구충 사업의 주요성을 주지시켜야 한다.

(3) 기생충 겸변 및 투약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건 계몽사업이 강화되어 실 행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국민들의 관심이나 인식을 도외시하고 주민 자조 방역사업을 추진하면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4) 말단 행정관서에서 최대한 협조는 한다고 하나 글자 그대로 협조에만 끌나는 일들이 아쉬움과 좀더 강력한 책임있는 지원이 절대 필요함을 느낀다. 이와 같이 몇 가지 기술한 문제점들은 하루속히 고착원에서 해결되어야겠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 각 시도 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일선 실무자들의 공통감이 타고 볼 수 있으며 본회에서는 일선 실무자들이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우리나라는 기생충의 생존에 적합한

자연 조건과 영농 방식,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양식이 그 감염 경로와 깊은 관계가 있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기생충 질환을 경시하는 풍조가 농후하여 문화국 가라 불리우는 나라 중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생충 감염율이 높은 기생충 왕국이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다.

기생충 질환은 태반의 경우, 그 질병의 진행이 만성적이나 병해로서는 이 환자의 활동능률과 생산성의 저하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뿐만 아니라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기필코 조기 박멸이 실현되어야하며 기생충 대책에 있어서도 겸변이나 투약이 예방사업을 앞설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기생충의 생활사를 이해시키고 그 예방책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므로써 우리 기협에서 근래 역점을 두고 있는 기간사업인 세마을 주민 자조 방역사업 제1차 3개년 계획 목표도 달성함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토막상식●〉~~~~~

어린이의 性지식은 올바르게

요지음 국민학교 4~5학년짜리 여학생의 너무

빠른 “멘스”때문에 깜짝 놀라 어머니들은 병원을 찾아 상담하는 일이 많다.

이것은 당연한 생리현상으로 재치있게 설명하는 어머니가 몇이나될까.

멋있게 「오늘부터 어른이 된것이에요」한다면 그

들도 어렵푸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예로써 국민학교부터 여학교에서만 교육받은 여학생은 남녀 공

학의 학교에서 배운 여학생보다 약 1년정도 초경이 더딘것을 발견했다.

즉 남녀공학은 분명히 어린이들 세계에서도 성적

자극의 환경이 되고 있다. 것을 알수 있다.

어린이로부터 성에 대한 기상천외의 질문을 받았을 때 대개의 부모는 편

잔을 주거나 어물어물 해버리는 태도를 취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멀지 않아 진실을 알게 될 그들에게 성 부정의 풍조를 보이는것은 좋지 못하다.